

배포일시	2025년 7월 10일	보도일시	2025년 7월 10일(즉시)
사진	유 ☒ 무 ☐	쪽수	2쪽(본문 2)
담당자	유민상 팀장(02-6959-8084/media@kdaxa.org)		

DAXA, 관계 부처와 손잡고 가상자산 업계 시장감시 역량 '다함께 업그레이드'

- 금감원·경찰청 참여... '시세조종 분석 방법' 및 '불공정거래 수사 사례' 교육
- DAXA 회원사 및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임직원 70여 명 참석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장감시 역량 강화 교육을 금일(10일)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관계자가 각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조사업무 및 시세조종 사례 소개"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수사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DAXA 회원사는 물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DAXA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장감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 걸친 지원을 계속해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선도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한 지금,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시장 신뢰를

이끌어 갈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심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적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